

# 한국형 축산업 개발 유도

정리 / 김용화 홍보팀장



△ 오봉국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 위원장

본고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기 위해 오봉국 추진위원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 축종이 참여하는 축산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 오봉국 : 우리나라 축산업이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어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축산인들은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제3자적인 입장이어서 축산인들이 계속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려는 마음가짐과 어려운 처지를 알려서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개최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의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생산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축산업은 환경보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한국형 축산업의 전개를 시도하여 저비용 투자로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축산업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또한 새로운 축산기자재의 소개와 축산경영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축산물의 가공처리 규격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여 소비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래도 전 축종이 참가하는 행사준비를 하려면 많은 경험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요?

△ 오봉국 : 지적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축산업이 어려운 만큼 어려움 탈출을 위해 축산박람회가 개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양계협회가 8년간에 걸쳐 4차례의 박람회 행사를 해본 경험을 밑그

림으로 출발을 하여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양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며, 코엑스 주관으로, 농림부, 축협, 사료협회가 후원을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산업계가 종합적으로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한양계협회가 주축이 되어 소, 돼지, 닭, 축산기자재 등 주요 축산물 생산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의미가 있고 20세기와 21세기를 함께 정립해야 하는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박람회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함과 동시에 각종 언론 매체나 업계 행사시 홍보를 하여 참가업체를 유도하면서 축산농가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봉국 박사님은 평생을 축산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산을 보는 안목이 넓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 축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오봉국 : 박람회에 국한된 질문만을 하실 줄 알았는데 참으로 가장 답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시장규모나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수입산물이 계속 증가하여 국내기반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어 더욱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1000년대의 축산업은 대량생산 시대였으나 향후 2000년대의 축산업은 안전성을 바탕으로한 고급화, 과학집약형 축산업 시대로 변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형 축산업의 개발로 차

별화가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간다면 국제경쟁에서 생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체계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상표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을 생산하여 수입산물이 갖지 못하는 노하우를 키우고 어렵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결 판매 체제인 직판체계를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한국 축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다면?

△ 오봉국 :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에 개최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우수성

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 지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 국제경쟁력제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말씀 하신다면?

△ 오봉국 :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축산인이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와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축산업의 위상이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며, 새로운 2000년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데 이정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

##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 주간 양계속보

—주간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